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 Yun, Ph. D., D.D., D. D.

설교목사

Preaching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부활의 증거들” (Proofs of Resurrection)

■ 마태복음 27장 62절 - 28장 15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런 부활 신앙을 더욱 확고하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한 증거지는 성경입니다.

1. 제자들의 자작극이라고 했던 로마 군사들의 일괄성이 없는 진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많은 경비병들이 동원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삼 일 동안 굳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 날, 주일 새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경비병들이 그 사실을 목격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이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목격자인 경비병들을 매수하고 거짓말을 하게 했습니다(마28:12-15절). 하지만 일괄성이 없는 경비병들의 진술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첫 공식 증인들의 순수성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마28:1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첫 목격자들은 과거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법정이었던 산헤드린은 여인의 증언은 증거로 받아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는데 마치 부활한 것처럼 제자들이 날조하려 했다면 그들은 결코 증인으로 채택될 수 없는 여자들을 세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었던 때문에 성경의 주장은 오히려 그 증거의 순수성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3. 부활에 대한 신앙은 지난 2000년이 넘는 세월동안 지속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로 인해서 날조된 것이라면 2000년이 지난 오늘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방에 꼭꼭 숨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듯이 자신들도 잡아 죽일까봐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매장하는 일도 여인들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도망하여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구름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게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4. 부활의 목격자들이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그 부활을 담대히 증거 하다가 모두 다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보여준 놀라운 변화야말로 부활에 대한 가장 힘있는 증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나와 있는 사도들을 포함한 순교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볼 수 있습니다.

5.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 한 두 사람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두 번만 나타나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약 6주 동안의 기간을 걸쳐 약 12번 정도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모여 숨죽여 식사를 하는 자리에 나타나셨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갈릴리 호숫가에도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약 500여 명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도 나타나셨습니다.

6. 성경님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의 일들을 증거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경께서 강림하셨을 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큰 거리로 나가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님의 내적이 증거가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맺는 말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 (매일)	본당 Ⅱ층
주 일 예 배	Ⅰ 부	가 족 예 배	오전 9시 - 9시 50분	본 당 Ⅱ,Ⅲ,Ⅳ층
		분 반 공 부	오전 10시 - 10시 30분	
	Ⅱ부	일 반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 12시 30분	
	Ⅲ부	(경배와찬양) 청 년 예 배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 3시 10분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찬 양 예 배		오후 5시	본 당
어린이 찬양예배		오후 5시	101호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Ⅱ,Ⅲ,Ⅳ층
	어린이 수요일예배		오후 5시	603호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20분	본 당 Ⅱ층

교회학교 안내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부 서	분반공부시간	장 소
영아부(0세-12개월)	I 부 오전 9시	영아부 403호	장 년 부	I 부 (30대)	오전10시/오후3시30분 401호/702호
유아부(13개월-4세)	II 부 오전11시20분	유아부 706호		II부 (40대)	오전10시 301호
	III 부 오후 2시	유치부 702호		III부 (50대)	오전10시 401호
유치부(5세-7세)				IV부 (60대)	오전10시 301호
				V부(70대이상)	오전10시 603호
유 년 부	오전 10시	701호	사 랑 부		오전10시30분 102호
초 등 부	오전 10시	101호	예바다부	I 부	오전11시20분 본당
중 등 부	오전 10시	501호		II부	오후2시 603호
고 등 부	오전 10시	601호	English Bible Class		오후12시30분 101호
대 학 부	오후 3시20분	701호	새 가 족 부	I 부	오전10시
청년 1,2부	오후 3시20분	603, 601호		II부	오후12시40분 602호
대학부 토요집회	오후 4시	501호		III부	오후3시20분
청년1,2부 토요집회	오후 5시	603, 601호		학습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2호
신혼가정부	오후3시20분	802호		세례 준비반	오전10시, 오후12시40분 609호
디아스포라부	오후 1시	903호	소요리문답 I·II부		오전10시,12시40분 801호601호
			신앙강좌 I·II부		오후 12시40분 904·701호

우리의 비전(vision)

-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 ② 교회 찬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부목사 함삼은 서명철 정수길 장석남 노현상 황광 박종민 유문건 박광일 박진아 전도사 지해영
 영어목회담당목사 Joshua Cho 교육목사 안규현 김안성 교육전도사 김은숙 협동목사 김영한 김재진 김은수 김철홍
 선 교 사 강아금 주하나, 이시라, 권요셉·조예스디, 김모췌·이한나(동아시아),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김해정,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박진영·김미성(방글라데시), 이재울·박병진, 전호진(캄보디아),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정상진·홍성임
 (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종길·홍미영(말레이시아), 손신일·민메라(체코), 이재훈·박재연(미디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민서·현혜옥(아르헨티나), 홍남기·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병강·최사라(동남아시아),
 박봉규, 김태식, 윤왕교, 추수희, 노선애, 이금순, 김영일, 김덕수(군선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이선희(병원선교)
 Thaung Neigh Mang·Cin Swan Mung·Ko Tin·Kha Ma·May Kya(미얀마)

English Worship Service

Presider : Rev. Joshua Cho

11:20 a.m.
Westminster Hall
* Please stand

Prelude	Organist
Call to worship Psalm 118:28-29	Presider
Invocation	Presider
* Hymn 2(6)	Congregation
*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Responsive Reading No.33	Congregation
* Doxology 1(1)	Congregation
Prayer	Elder Yong Shik Shin
Hymn (151)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Luke 15:11-24	Presider
Member's 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634(7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acher
Anthem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Jerusalem Choir
Welcome to Newcomers	Congregation
Sermon Prodigal Father, Part 1	Rev. Joshua Cho
* Hymn 305(405)	Congregation
* Benediction	Preacher
* Singing of the Lord's Prayer	Congregation

Prodigal Father, Part 1

Luke 15:11-24

Summary of the sermon

Today's passage is famously known as "The Parable of the Prodigal Son." Although the younger son was "prodigal," the father was the one who was lavish, almost reckless, with his love. The father's love, not the son's wild living, is the point of the story. The father represents God, and the two sons represent two kinds of sinners, the rebellious and the obedient religious. Both need God. Today, we will focus on the younger son's home-coming in three stages.

First, running away. In an unthinkable act of disrespect, the son demanded his inheritance. When he got it, he left in a hurry and went far away. There are many running from God. Underlying this is not only a pursuit of this world, but a hatred towards God. Sometimes, God allows us to go, so we will taste the world's bitterness and realize His goodness. Next, hitting rock bottom. After squandering his wealth, there was a famine. To survive, he got a job feeding pigs. As he was starving, he finally came to his senses. I need to go home! This world is a pig-pen, and only God can satisfy. It's so obvious, yet we are so blind that God sends a famine and a pig-pen to wake us up. How long before you wake up? Finally, coming home. He planned his speech. The only thing he could request was to be a hired man. But his father saw him from afar, and ran to him. How undignified! Before he could finish his speech, the father adorned him. And a party to top it off! The best we could hope for is to sweep God's floor for eternity. But forgiven? Adopted? Seated with Christ?

This is prodigal grace! Not a little handout. Not a little help to get us on our feet again. We spit in God's face. We took our inheritance and left home. We had no rights with God. But through the rescue mission of our better, older brother, Jesus Christ, God forgave us, adopted us, and is now preparing a party for us in heaven! Let's go ho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nnouncement

- Welcome to our worship! After worship, we invite everyone to join us for fellowship in Rm. 104.
- Every Wed at 8:30pm, we meet in Room 603 to study the Gospel of John. Please join us!
- Mark your calendar! Our spring outing is next week, Tue, May 10th, 11am, at the Bethel House. Please come to the church by 10am to take the church bus.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설교: 박노철 목사

	시 간 Time	인 도 Presider	기 도 Prayer
I	오전 9시	황 광 목사	황 광 목사
II	오전 11시 20분	박종민 목사	윤봉준 장로
III	오후 2시	유문건 목사	하영수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부름 Call to Worship	시 127:1 ...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 다 함 계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계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 2, 3부 ... 다 함 계
	96(아람)주일
* 송 영 Doxology	1(1) ... 다 함 계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565(300) ... 다 함 계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엢 6:4 ...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계
헌금, 구제헌금 Offering	다 함 계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계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계
설 교 Sermon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명" 박노철 목사 (The Mission of Parents for Children)
* 찬 송 Hymn	559(305) ... 다 함 계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계

목 도	다 함 계
성 시	마 18:3 ... 인 도 자
찬 송	560 ... 다 함 계
찬 도	변민중 집사
찬 송	563(411) ... 다 함 계
성 경	엢 2:14-18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주께로 더 가까이" ... 설 교 자
특별찬양	말 은 이
* 찬 송	568 ... 다 함 계
* 축 도	다 함 계
* 주기도송	다 함 계

수 요 예 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 인도·설교: 박노철 목사

기 도	I부: 박종숙 권사, II부: 박재숙 권사
성 경	느 8:13-18 ...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말씀 따라 순종 하기" ... 설 교 자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한현숙·홍해란·김양연
설 교: 박노철, 노현상 목사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20분 본당 2층
설 교: 박노철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엢 5:19) ◆
CANTANTES ET PSALLEN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예 배	찬양대	연 주 곡 명	작(편)곡자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I부	가브리엘	찬 좋으신 주님	김기영	유태왕	차주연	박승기	윤주원
II부	할렐루야	십자가 군병	Charles Gounod	고성진	김현정11	김양연	박광서
III부	임마누엘	날 사랑하심	백승남	류충기	강만정1	양경실	이하진
찬양예배	베들레헴	오직 한분	Dick Anthony	김낙형	오신옥	박수강	
영어예배	예루살렘	All Things Bright and Beautiful	John Rutler	심상희	최수환	이승민1	
수요 I부	은 빛	해지는 저 산 너머	John W. Peterson	박정선	김윤지2	홍해란	
수요 II부	시 온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Johann S. Bach	백경화	이순제	서유진	

(헌금송)

I부	유 초동부연합	사람이란 나누어주는 것	Pand H. Jacobs	김지현		박재원	
II부	그레이스랜드	예수 사랑 하심은	Kevin McChesney	송재월			
III부	아멘관현악단	갈보리 산위에	G. Bernard	임범창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cr 뒷면에 계속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성명	다락방	소속부서	인도자
설동욱	5-8	아삭	황선희	문성훈	12-8	창원부	임영숙/김수원	황한서	10-11	사랑부	이유희/최성희
장해영	5-8	리브가	황선희	이영훈	13-25	도르가	김은순/이영훈	김찬수	16교구	대학부	본인
원두용	1-19	베드로	김연희	광무영	7-9	애마다부	본인	원상현	1-19	고등부	김연희
이창주	13-25	안드레	김은순/이영훈	박현소	12-7	대학부	박갑희/장민숙/양정현	원지현	1-19	중등부	김연희
이철호	7-9	애마다부	본인	곽차현	10-11	사랑부	이유희/최성희	이용석	교육	초등부	김은순/이영훈
김준진	1-19	도르가	김연희	박동성	9-7	대학부	박아선/김영애	이서원	1국	유치부	김은순/이영훈

☞앞면에서 계속

8. 의료 상담 / 오종원(내과), 이현(정형외과)

주일 오후 1시 902호에서 의료 상담 및 진료를 합니다. * 전화 예약 : 011-9759-2299

9. 일제심방 / · 6일(금) : 1-9, 9-11, 12-7

● 장례

1.故 조을례 (3교구 문혜신 성도 시부) / 26일(화) 별세 28일(목) 발인



자녀를 위한 기도

주님

언약의 자손된 저들 위에
대지를 적시운 이슬 같이
맑고도 신선한 은총 펴사
새 영을 날마다 부으소서

주님

천국의 자녀된 저들 위에
하늘 나는 독수리같이
희망과 권능의 은사 주사
광명의 새 시대 맡기소서

주님

우리집 보배된 저들 위에
하늘 별 바다 모래 반짝이듯
평강 왕 메시아 복 내리사
온세상 빛되게 하옵소서

- 이종을 목사 신앙 컬럼 '순례자'에서 -

청결
유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교회에서 음식물 섭취는 만나 홀(801호)에서만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십시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니다.

주일
성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